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년 1월 13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의 2016년 어젠다 발표: 뉴욕주가 리드하도록 구축되고 계속 구축되도록 하는 그만의 제안

그의 제6차 주 시정 연설에서 Cuomo 지사는 5년간의 진보를 토대로 초점을 시급한 이슈 및 기회 영역에서의 기준을 올리는 쪽으로 전환하는 뉴욕주를 위한 개혁 어젠다를 발표합니다

주지사의 집행 예산은 기록적인 회계 규율을 지속하면서 인프라, 저렴 주택 및 홈리스와 교육 보조금에 극적인 투자를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건설한 유급 가족 휴가 정책; 전국 최초의 15달러 최저 임금; 2020년까지 석탄 발전 폐지; 종합적 윤리 패키지; 유방암 검진 10% 증대가 모두 주지사의 2016년 어젠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Andrew M. Cuomo 지사는 Albany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컨벤션 센터에서 그의 2016년 주 시정 및 집행예산 연설을 하였습니다. 주지사의 금년 어젠다 주제는 미국 역사에서 기수로서의 뉴욕주 전통을 이어받아 “리드하도록 구축”입니다. 이는 지난 5년에 걸쳐 주에서 달성한 커다란 진보, 와 오늘날의 가장 시급한 도전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국을 리드할 뉴욕주의 내재된 능력에 기반합니다.

“5년 동안에 우리는 뉴욕주를 위하여 많은 것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룩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나라를 귀찮게 하는 문제들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허물어지는 인프라로부터 기후변화와 빈부 격차 확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커다란 도전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뉴욕주가 이러한 이슈를 정복할 수 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에도 그것을 정복해 왔기 때문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다룰 능력을 입증해 왔으며 한 때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되었던 것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스마트하고, 튼튼하며 공정한 뉴욕주를 건설하여 전국에 다시 한 번 전진의 길을 보일 것입니다.”

주지사의 2016년 정책서 전체를 [여기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2016년을 위한 그의 고유한 제안 중 다수가 아래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회계 규율 및 정부 효율성 지속

주 지출을 2% 미만으로 유지

본 집행예산은 주지사의 첫 5개 예산을 정의한 재정 문제에 대한 규율된 접근법을 지속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본 예산은 다시 주 경정 예산 지출에서의 년 증가율을 1.7%로 제한합니다.

소기업 세금 삭감을 위한 3억 달러

소기업은 뉴욕주의 모든 민간 부문 일자리의 43%를 차지하는 주 경제의 중추입니다. 지난 5년 동안 Cuomo 지사는 세금 부담을 낮춰 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2011년에 취임한 이래 그는 전주의 소기업들에게 2021년까지 38억 달러를 절약시켜 줄 일련의 감세를 추진해 왔습니다.

소기업 부문의 성장을 지속시켜 뉴욕주의 경제 팽창을 가속화하기 위해 Cuomo 지사는 법인세를 통해 납부하는 소기업과 개인 소득세를 통해 납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감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주적으로 약 1,091,000개의 소기업이 이 안으로 혜택을 볼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통합 장려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살고 일하는 것을 더욱 부담 없게 만들기 위해 실제적 조치를 취하는 지방 정부들을 보상하기 위한 지자체 통합 및 효율성 경쟁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경쟁은 카운티, 시, 타운 및 빌리지들이 혁신적인 통합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상당하고 영구적인 재산세 감축을 실현하도록 자극할 것입니다. 재산세를 가장 많이 영구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통합 파트너십이 2,000만 달러의 상금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공적 투자 지속

재정 규율 지속으로 뉴욕주는 지역 경제를 다변화하고 성장시켜 주 전역에 더욱 튼튼한 커뮤니티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지역협의회 및 업스테이트 재활성화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토대로 주지사는 제6차수의 지역협의회 보조금과 URI 차상위 보조금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6-17 주 예산에 9억 5000만 달러로 이 지역 경제개발 접근법의 지속을 제안하였습니다. 제6차수의 지역협의회 이니셔티브는 주의 10개 지역 사이에 경쟁을 통해 분할될 7억 5000만 달러와 작년 URI의 차상위 지역 우선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2억 달러를 포함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지사는 2015년에 883,000여개의 일자리와 1000억 달러의 경제 영향을 담당할 뉴욕주의 중요한 관광 부문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I LOVE NY 캠페인 예산의 10% 증대를 제안합니다.

지방 정부를 위한 Medicaid 경감 지속

주정부는 Medicaid의 지방 몫 증가를 철폐하여 카운티에 5개년(FY 2015-2019)에 걸쳐 8억 달러를 절약시켜주었습니다. 2015 회계연도부터 재산세 상한 대상 카운티의

Medicaid 비용이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Medicaid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카운티의 모든 증가액은 주정부가 흡수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또한 카운티들을 위한 Medicaid 행정 책임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효율성이 더 커져 뉴욕주와 연방 보건 개혁 사업이 좋은 결실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빌트투리드 인프라 프로그램

경쟁력을 유지하고 경제발전을 진흥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뉴욕주는 주 전역의 도로, 교량,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공공 건물 및 기타 중요 인프라를 계속 재건하고 현대화해야 합니다. Cuomo 지사는 취임한 이래 뉴욕주 전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54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여 경제 개발에 대한 주의 접근법을 재발명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지사는 Tappan Zee 교량 교체, LaGuardia 및 JFK 공항 재개발, 뉴욕주와 뉴저지주 사이 Gateway Tunnel 프로젝트 같이 장기 침체되거나 오래 지연된 프로젝트를 점프스타트시켰습니다.

주지사는 금년에도 주 전역에서 다수의 주요 인프라 건설, 재건 및 재활성화 프로젝트로 그 진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다음 제안들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Long Island 교통:** 다운스테이트의 중요 인프라를 탈바꿈 및 확장하고 다운스테이트 지역에 필수적인 투자를 시행. 가장 주목할만한 것으로는, 이 제안에 Floral Park와 Hicksville을 운행하는 LIRR(Long Island Rail Road)에 대한 대대적인 확장과 개선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 **물 인프라:** 주 전역, 특히 업스테이트 커뮤니티의 음용수 및 폐수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에 2억 5000만 달러 투입.
- **고속도로청:** 작년의 12억 8500만 달러 투입에 더하여 고속도로 인프라에 7억 달러 투입. 이 투자로 인해 고속도로청은 최소 2020년까지 모든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동결할 수 있게 됩니다.
- **도로 및 교량:** 주 전역, 특히 업스테이트 뉴욕의 중요 도로, 교량 및 기타 필수 교통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220억 달러 다개년 자본 계획 출범.
- **Penn역:** 30억 달러 비용 예상으로 Penn 역과 유서 깊은 James A. Farley 우체국을 세계적 수준의 교통 허브로 탈바꿈.
- **브로드밴드:** 뉴욕주 전역에 있는 커뮤니티에서 초고속 인터넷 접근성을 크게 확대하고 향상시킵니다.
- **Javits 센터:** 10억 달러 비용 예상으로 지역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 Jacob K. Javits 컨벤션 센터를 재개발.
- **MTA:**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을 현대화하고 근본적으로 탈바꿈시켜서 수백만 뉴욕주민들과 메트로폴리탄 지역 방문객들의 이동 경험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 **업스테이트 공항들:** 업스테이트 공항들 재활성화를 위해 2억 달러 경쟁을 실시합니다. 이 제안은 업스테이트 뉴욕의 공항들을 강화하고, 민관 부문 간의 지역 경제 개발 및 파트너십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제안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여기에 있는](#) 주지사의 2016년 정책서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인프라 항목의 비용 명세는 [여기에](#) 있습니다.

학교 지원 및 교육 투자

작년에 뉴욕주는 공립학교 교육구를 위한 보조금을 주 역사상 최고 수준인 235억 달러로
인상한 예산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돈은 약 700개 교육구와 유아원~12학년의 280만명
학생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뉴욕주는 현재 전국의 어느 주보다 더 많은 학생당 예산, 즉
전국 평균 10,700 달러의 약 2배인 평균 19,818 달러를 소비합니다.

금년에 주지사는 주의 공립학교 투자를 다시 크게 증대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의
집행예산은 2016-17 학년도의 9억 9100만 달러(4.3%) 증가를 포함하여 다음 2개
학년도에 걸쳐 학교 보조금을 21억 달러 증대합니다. 그러면 2017 학년도에는 총
보조금이 242억 달러가 될 것입니다. 주지사의 제안은 주의 모든 교육구에 경상 보조금
증가를 제공하여 전주 교육 지원을 다시 한 번 기록적 수준으로 올릴 것입니다.

NYSUNY 2020 및 NYCUNY 2020 연장

2011년에 Cuomo 지사는 뉴욕주 공립대학에 4억 7000만 달러의 추가 자금을 제공하여
등록금 인상을 낮고 예측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NYSUNY 2020 및 NYCUNY 2020
프로그램을 제정하였습니다. NYSUNY 2020 및 NYCUNY 2020은 학생과 가족들이
교육비 전액을 계획할 수 없게 만든 예측 불가능한 등록금 롤러코스터를 고쳐 45%를
상회하는 급격한 등록금 인상의 날들을 종식시켰습니다. 5년간의 예측 가능한 등록금
후에 뉴욕주의 공립대학 4년 상주율은 북동부 최저이고 전국 최저 4분위 수에 속합니다.

2011년 이래 이 프로그램은 학생과 가족들에게 예측 가능한 등록금 인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Empire State Development를 통해 고등교육 시스템을 경제 발전과 연계하는
공공-민간 NYSUNY 2020 및 NYCUNY 2020 Challenge 보조금 프로그램을 위한 새 자본
매칭 보조금 4억 7000만 달러도 제공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SUNY 및 CUNY
캠퍼스에서 캠퍼스와 주변 커뮤니티에 혜택을 주기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포함하는
상향식의 개별적 장기 경제 개발 계획에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프로젝트는 상업화
유도 잠재력과 함께 인력 개발 및 연구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학문 경험과 지속적 경제
영향에 대한 측정 가능한 영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등록금을 낮고 예측 가능하게 유지하며 추가 자금을 우리의 SUNY 및 CUNY 시스템에
융합하기 위해 주지사는 2011년 법안의 추가 5년 연장을 제안합니다. 이 합리적 등록금
제안에 의거 만약 SUNY와 CUNY가 지출을 줄이기 위한 상당한 노력과 어떠한 증가가
적절한 인플레이 지수에 연계됨을 입증할 수 있다면 등록금을 년 최대 300달러 인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금 인상에 의해 생성되는 추가 수입금은 교수진을 뒷받침하고,
지도를 개선하며, TAP 적격 학생들에게 등록금 크레딧을 제공하기 위한 “사용 목적 지정
기금함”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년 300 달러의 등록금 인상으로 SUNY의 경우 년 8900만
달러와 CUNY의 경우 5100만 달러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NYSUNY 2020 및

NYCUNY 2020 Challenge 보조금 프로그램을 위해 Empire State Development를 통한 신규 자본 매칭 보조금 1억 1000만 달러를 계속 제공하고 다음 5개년에 걸쳐 주 보조금 4억 달러 추가 증가와 연계될 것입니다.

차이 제거 조정 종식

또한 Cuomo 지사의 21억 달러 학교 보조금 증대로 주정부는 미결된 4억 3400만 달러의 차이 제거 조정액을 2년에 걸쳐 제거할 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교육구에 경상비 증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GEA는 2009년에 심한 전세계적 금융 불황과 싸우기 위해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 하에 주정부는 해당되는 모든 교육구를 위한 GEA를 복원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 왔습니다. 주지사는 다음 2년에 걸쳐 GEA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철폐할 것을 제안합니다. GEA를 철폐하기 위한 이 2개년 계획으로 교육구는 예측 가능한 수입 흐름이 가능하여 장기적 재정 계획을 향상하고 책임 있는 예산 관행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1억 달러 커뮤니티 학교 기금 확립

주지사는 실패 학교 및 기타 고니즈 학교를 커뮤니티 학교로 탈바꿈시켜 빈곤 문제를 같이 협력하는 커뮤니티와 함께 해결하여 모든 학생들이 준비되고 안전하며 건강하고 배울 준비가 되도록 하는 데 1억 달러를 투입할 것입니다. 이 투자는 학생들에게 긍정적 미래를 구축할 조기 기회를 제공하여 불우 청소년들 사이의 높은 범죄율 추세를 끊는 데 긴요합니다.

뉴욕시 시장 통제권 연장

뉴욕시는 2002년 이래 공립학교 시스템에 대한 시장 통제권을 가져왔습니다; 이 권한은 현재 2016년에 만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Cuomo 지사는 금년에 뉴욕시 시장 통제권의 3년 연장을 지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Cuomo 지사는 주 전역의 다른 시의 시장들도 학교에 대한 시장 통제권이 학생 성취를 뒷받침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3세아를 위한 유아원 확대

주의 유아원 프로그램에는 현재 약 120,000명 학생들이 있는데 대부분 전일제 유아원에 있습니다. 주지사는 고니즈 지구의 추가 3~4세 아동 3,000명을 위한 유아원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추가로 3000만 달러를 투입하였습니다. 주지사는 3세아를 위해 추가로 2,000-2,500명의 3세 학생들에게 조기 아동 교육 제공을 뒷받침하여 이 아동들이 중요한 두뇌 및 언어 발달 시기에 활동과 놀이를 통해 자신감과 사회적 기능을 구축할 기회와 함께 양질의 지도를 더욱 조기에 받도록 할 유아원에 추가 2200만 달러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주지사는 유아원 프로그램의 높은 질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200만 달러 투입을 제안합니다.

교육 신뢰 회복: 카먼코어 태스크포스

과거 카먼코어의 시행과 관련된 혼동과 혼란에 대응하여 Cuomo 지사는 주 표준, 커리큘럼 및 평가를 검토할 15인 태스크포스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12회의 공공 참여 세션에 걸쳐 학부모, 교사, 학생 및 기타 교육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피드백과 이해관계자들의 2000여 코멘트 및 대화에 근거하여 50여 페이지의 보고서와 21개의 권고 사항을 2015년 12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는 세심한 검토 후에 카먼코어 태스크포스 보고서의 21개 권고 사항 모두를 수락합니다.

태스크포스는 시험 축소, 학부모 참여 증대 및 지역 교육구 권한 확대를 포함한 대대적인 개혁을 제안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이 제도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약 20%의 학생들이 시험 불응시를 선택하였는데 일부 교육구에서는 그것이 90%나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학부모 신뢰가 없다면 교육 제도는 실패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주 교육부의 카먼코어 커리큘럼 시행 실수와 시험 프로그램을 시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결정임은 경험이 말해주며 주지사는 주 교육부가 이번에는 그것을 올바르게 하고 그 노력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충분히 활용되기를 촉구합니다.

교사를 위한 200 달러 용품 크레딧 통과

Cuomo 지사는 우수 교사를 뉴욕주 학교에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오랫동안 지지해 왔습니다. 교사들은 근면하며 자신의 학생들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주정부는 이러한 교사들을 격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지도 자료 또는 기타 교실 용품을 구입하는 교사들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주지사는 교사들에게 교실 자료와 용품 구입에 대해 최대 200달러를 상환하기 위한 세금 공제로 1000만 달러를 제안합니다.

더 청결하고 친환경적인 뉴욕주를 보장

석탄 없는 뉴욕주를 2020년까지 달성

석탄은 발전을 위한 최고의 온실 가스 배출 및 환경적으로 유해한 연료원 중 하나입니다. 석탄이 1950년대까지는 우리 에너지 니즈의 대부분을 공급하였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을 위한 더 깨끗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뉴욕주에는 3개의 현역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주 에너지 부하의 4% 미만만 생산하는데, 한 개 발전소는 2016년에 폐쇄될 예정입니다.

에너지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지사는 2020년까지 나머지 3개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청정 연료원으로 개조하려고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지사는 공공서비스부와 DEC가 New York Independent System Operator와 협력하여 2020년 이전에 청정 연료로 전환 또는 폐쇄를 촉진하면서 시스템 신뢰성을 확보할 규제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할 것입니다.

커뮤니티와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지사는 노화 또는 쓸모 없게 된 발전소의 폐쇄와 관련된 재정 손실을 상쇄하기 위한 주의 1900만 달러 완화 자금을 이용할 것입니다. Cuomo 지사는 일자리를 보전하거나 현재의 직원을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경제에서의 새 일자리에 유지하는 방식으로 그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 정부와 교육구에 세수 안정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발전소 소유자 및 호스트

커뮤니티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환경보호기금으로 3억 달러 배정

주지사는 뉴욕주가 국가 환경 보호 기금으로 기금 사상 최고 금액이자 주지사가 처음 취임 당시 약속한 금액의 두 배인 3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토지 취득, 농지 보호, 침입종 예방 및 근절, 워터프론트 활성화 및 적극적 환경 정의 의제에 대한 자원을 추가하는 긴급 환경 투자에 대한 기록적인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 제안은 2030년까지 뉴욕주 온실가스 배출을 40%까지 줄이고 뉴욕주가 2030년까지 소비하는 모든 전기의 50%를 청정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원에서 얻도록 보장하기 위한 [주지사의 활동](#) 포함해 환경 보호 리더라는 뉴욕주의 유산을 발전시키고 주지사의 이전 업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민 안전 강화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뉴욕주 전역에서 항시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4,000만 달러 배정

테러리스트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시민에 대한 보호 활동을 증대할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주지사는 2014년에 뉴욕시 메트로 지역에 주경찰, MTA 경찰, 주방위군 배치 인력을 증가하면서 대대적인 테러 반대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뉴욕주는 또한 2015년에 뉴욕주민들에게 의심스런 행동이 목격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See Something, Send Something”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았습니다.

교통 허브와 중요 인프라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해 뉴욕주는 뉴욕시에 주경찰을 상시 배치할 것입니다. 특수 훈련을 받은 제복 주경찰관들은 수십 명의 수사관들과 함께 뉴욕시 안과 주변에서 단속을 실시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지사는 4,000만 달러의 총 투자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투자금은 뉴욕주의 중요 인프라를 보호할 단속반원을 늘리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주경찰관의 훈련 및 장비 강화

최근 테러 공격을 보면 군대의 학살 무기를 사용하는 공조 타격과 외로운 늑대 공격을 자행하는 자생적 극단주의자들의 움직임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미국 영토에서 일어나기가 쉬우며 뉴욕주 내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일상적인 형태의 테러로 뉴욕주의 테러 반대 활동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주지사는 뉴욕시와 뉴욕주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이러한 위협에 맞서 뉴욕주 경찰관들을 대비시키기 위해 400만 달러도 투자할 것입니다. 이 투자로 이처럼 진화하는 테러 위협에 맞설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고성능 소총, 방탄복, 탄도 헬멧을 모든 제복 경찰관에게 공급할 것입니다.

주경찰 및 테러 반대사무국과의 통합

2015년, 주지사는 전직 뉴욕시 경찰부 커미셔너 Ray Kelly가 뉴욕주의 기존의 테러 반대 준비 및 예방 활동에 대한 심층 평가를 실시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Kelly 커미셔너는 뉴욕주가 뉴욕주 경찰국의 테러반대사무국 내에서 주지사가 동의한 DHSES의 테러반대사무국의 작전 요소를 통합하도록 하는 예비 권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 변화로 뉴욕주정보센터(NYSIC) 내 모든 정보 및 분석 자원을 뉴욕주 경찰의 단일 명령 체계로 통합하게 되어 뉴욕주의 테러 반대 활동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 강력반은 최신 기술과 기법을 동원해 알려진 모든 위협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목표를 파악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연방, 주, 현지, 부족 및 민간 부문 활동을 계속 지원하여 테러 활동과 위협으로부터 대비하고 이에 대응할 것입니다.

테러 갭(Terror Gap) 차단

오늘, 미국 주들은 연방정부의 테러 감시 리스트(Terror Watch List)를 사용하여 화기 소지 면허 또는 구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며, Washington D.C.는 총기 소지 신원조사 시 테러리스트와 관련된 정보 사용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지사는 연방정부에게 미국 테러 감시 목록을 뉴욕주 연방 신원 조사에 사용하는 기준에 공식 추가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알려져 있거나 의심을 받고 있는 테러리스트가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하는 것을 막고, 테러 감시 명단과 NICBCS(National Instan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 요청과 교차 대조하여 뉴욕주 내에서 테러 갭을 효과적으로 막고 연방 테러 감시 명단에 올라 있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무장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사회 및 경제 발전에서 미국을 이끌다

주택의 대대적인 확장과 노숙 계획에 200여억 달러 배정

10억 달러의 House NY 이니셔티브를 통해 저렴한 주택 제공을 위한 뉴욕주의 최대 활동과 세입자 보호단체(Tenant Protection Un)의 창설(50,000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 법규 대상으로 돌린)을 포함한 업적과 함께 지난 5년 동안 저렴한 주택 보존 및 건축이 상당히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은 뉴욕주의 주택 비용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주지사는 지난 5년 간 역사적인 두 개의 제안, 즉 저렴한 주택 제공을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House NY 2020 Plan과 100억 달러 규모의 노숙 활동 계획에 2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House NY 2020를 통해 뉴욕주 전역에서 100,000채의 저렴한 주택을 짓고 보존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뉴욕주의 지출을 거의 50억까지 올리는 이 제안은 저렴한 아파트와 단독 주택을 짓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소유권을 저렴하게 책정해주며, 커뮤니티 재활성화에 투자 비용을 늘리고,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주택 선택 기회를 증대하고, 저렴한 주택을 찾는 뉴욕주민들을 포함해 의로인에게 더 잘 봉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숙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영구적인 주택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Cuomo 주지사는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인 규모의 104억 달러 지원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향후 5년간 6,000개의 지원성 새로운 주택 침대, 1,000개의 응급 침상, 다양한 노숙 해결 확대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15년 동안, 뉴욕주는 뉴욕이 이미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44,000채의 기존 지원 주택 아파트를 바탕으로 20,000채의 신규 아파트를 추가할 것입니다. 이 투자는 뉴욕주 역사상 노숙 문제를 처리하는 데 가장 큰 약속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노숙자 쉼터의 상태를 개선하고 노숙자 쉼터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극단의 조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4월 1일 이후, 뉴욕주 검사원들은 뉴욕주 전역에서 노숙자 쉼터를 점검한 결과 2,508건의 건강 및 안전 위반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뉴욕주는 주지사 제안의 일환으로 Thomas DiNapoli 감사관과 함께 뉴욕주의 노숙자 쉼터를 감사하고, 뉴욕시 감사관 Scott Stringer 및 Buffalo 감사관 Mark J.F. Schroeder와 함께 각기 뉴욕시와 Buffalo에 자리한 쉼터를 점검하고 조사할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쉼터는 즉시 현지 경찰의 보호를 받도록 하거나 폐쇄시킬 것입니다. 쉼터의 위생이 불결하거나 달리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판단될 경우 제대로 쉼터를 운영하는 유자격 비영리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약 취소, 운영자 교체 또는 폐쇄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관리자의 관리 문제가 체계적일 경우 이 곳을 운영할 관재인을 임명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뉴욕주는 모든 사회복지 시설에 뉴욕주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청할 것이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Empire State 빈곤 퇴치 이니셔티브에 2,500만 달러 배정

이 2,500만 달러 프로그램은 주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 단체 및 기업 단체를 하나로 모아 Upstate New York의 10개 커뮤니티에 경제적 이동성을 증대할 공조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뉴욕은 각 커뮤니티에 기획 및 이행 활동에 500,000달러를 제공하고, 아울러 민간 부문과 기반 조성 자금과 매치를 이를 2,000만 달러의 보조금 풀(grant pool)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선정된 시는 지자체 내 빈곤 집중률을 바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Syracuse, Binghamton, Oneonta, Buffalo, Utica, Elmira, Jamestown, Oswego, Troy, Albany가 포함됩니다.

최저 임금 상향 조정

Cuomo 주지사는 뉴욕을 모든 근로자에게 15달러의 최저시급을 주는 미국 최초의 주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모든 업종에 대한 시간당 15달러의 최저 임금 인상은 전체 노동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뉴욕주의 230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안겨 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지사의 활동의 결과로, 뉴욕이 패스트푸드 식당 종업원, 공공부문 근로자 및 SUNY 직원들에게 15달러의 최저 시급을 주는 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들의 수는 뉴욕주 100만 명의 근로자 중 약 1/4에 달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뉴욕주민들에게 유급 육아 또는 간호 휴가 제공

현재 연방법은 무급 육아 또는 간호 휴가만 제공하고 있어서 아픈 친척이나 신생아를 돌보아야 하거나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압박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딜레마가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연방의 무급 육아 또는 간호 휴가는 전체 근로자 중 약 60% 정도만 커버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직장인들이 가족들을 돌보면서 소득과 일자리 안정성도 유지할 수 있도록 뉴욕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유급 육아 또는 간호 휴가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뉴욕주의 유급 육아 또는 간호 휴가 프로그램은 신생아와 유대감을 쌓고 아픈 친척을 돌보는 데 사용하도록 12주의 걸친 일자리 보호 및 근로자 지원 휴가를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의 유급 육아 또는 간호 휴가는 특히 혜택이나 일자리 안정을 받지 못하거나 무급이라도 어떤 휴가이든 받을 수 없거나 비용 지급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급 육아 또는 간호 휴가는 여성들에게 아주 좋은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이는 많은 경우 직장을 떠나 신생아를 돌보아야 하는 여성들이 단기간 기존의 월급을 몰수당할 뿐 아니라 미래 소득 감소와 장기간 경력 단절까지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급 육아 또는 간호 휴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평등과 존엄성을 추구하는 중요한 다음 단계입니다.

MWBE를 위한 기회 확대

2014년,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MWBE 주계약 활용을 위해 30%의 목표를 정해놓았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주법에 따라 이 목표는 뉴욕주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계약에만 적용될 뿐 연간 약 650억 달러에 달하는 시, 카운티, 타운, 마을 및 학군과 같이 지자체에 제공되는 주정부 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올해, 주지사는 지자체와 하청 계약을 맺는 이들 지자체 및 단체들에게 MWBE 목표 설정을 확대하여 이러한 단절 부분을 해소하는 법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주 기금 풀을 활용하여 제도적 차별과 싸우고 MWBE 참여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법제도와 사회 재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

주지사는 사법제도와 사회 재통합에 있어서 미국을 선도하는 뉴욕의 유산을 지속시킬 종합적인 “권리 우선(Right Priorities)”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커뮤니티 학교에 1억 달러의 투자를 제안한 것을 포함해 주지사의 제안은 (a) Urban Youth Jobs Program 및 관련 직업 훈련에 5,500달러 투자, (b) 교도소 수감을 대체할 방법의 사용을 확대 및 현대화, (c) 교도소 내 교육 프로그램 활동으로 범죄 행위 근절, (d) 출소 후 처음 6개월 동안 과도기 지원 서비스 사용 개선, (e) 형사 책임 연령을 상향하는 법안 재도입, (f) 사면자들을 위한 범죄 기록 접근 제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독립 특별검사실 마련

2015년, 주지사는 경찰관들에 의한 비무장 시민들의 사람과 관련한 문제에서 검찰총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행정명령 147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의 목적과 투명한 조사에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시 미봉책으로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주지사는 독립 특별검사국의 설립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 특별검사국은 경찰과의 기존 관계에서 독립하여 편애 또는 편파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독립 특별검사가 임명됨에 따라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은 앞으로도 계속 공정하고 독립된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이해와 믿음을 되살려나갈 것입니다.

U-Visa 사용 증가로 이민자 범죄 피해자 보호

불법 이민자들은 직장에서 착취를 당할 위험이 많고, 추방될까 두려워 위반사항을 신고하거나 경찰과 협력하기를 꺼립니다. 뉴욕주에는 현재 약 900,000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있고, 그 중 522,000명은 불법 취업자들입니다. 뉴욕주법은 이민 상태와 상관 없이 직장 내 차별, 임금착취, 오분류, 보복, 인신매매 및 기타 노동기준 위반으로부터 모든 근로자들을 보호합니다.

2002년, 미 의회는 U 불법이민자 Visa(U Visa)를 만들어 범죄 발견, 조사, 기소에 도움을 주는 근로자들에게 임시 법적 신분을 제공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U Visa는 이민자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단속기관이 범죄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U Visa 소지자는 최고 4년까지 법적 신분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취업 허가가 자동 부여됩니다. 이들은 또한 3년 후 합법적으로 영구권 지위를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직속 유자격 가족은 과생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U Visa가 취약한 불법 뉴욕주민들을 보호하는 법을 단속하는 기관에게 특히 강력한 도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1년 봄, 그는 뉴욕주 노동부에게 어떤 기준에 부합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범죄의 피해자임을 보여준 고소인과 목격자에 대한 정부기관 수사 시 U Visa를 인증할 것을 지시하였고 습니다. 범죄를 발견하고 기소하기 위해 주지사는 뉴욕주 경찰과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에게 공식 프로토콜을 설정한 후 고소인, 피해자 및 목격자의 U Visa 인증을 받고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주지사는 현지 사회복지부의 감독 권한을 통해 아동가족서비스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에게 책임 구역에게 수사단체로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U Visa를 인증할 것을 조언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공중 보건 보호

뉴욕주 식품 인증

뉴욕주에서 활기에 넘치는 농업 및 식품 산업은 뉴욕주를 소비자에게 구입하고 먹는 식품에 대한 투명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하게 해주었습니다. 2015년, 주지사는 식품 생산과 식품 변호의 미국 내 최고 전문가들을 소집하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에 관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Safe and Healthy Foods)를 창설하여 식품 안전과 가짜 브랜드 문제를 살피고 소비자들에게 어떤 뉴욕 식품을 가장 잘 구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뉴욕주 CHQ(High Quality)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킬 것입니다. 이 종합 계획은 뉴욕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제품 라벨을 정확히 붙이며 식품 취급 및 환경 책무에 최고의 관례를 준수한 뉴욕 생산자들을 찾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뉴욕주 CHQ 이니셔티브는 다음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브랜딩 & 마케팅: 뉴욕주 인증 짚은 공인된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플랜을 유지하고 좋은 환경 책무를 보여준 생산자에게 부여될 것입니다. 뉴욕은 Taste NY 프로그램의 성공을 발판으로 소비자들에게 이 짚이 부착된 식품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실시할 것입니다.
2. 단속: 뉴욕주는 가짜 브랜드 및 사기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능력도 보장할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 양심 있는 생산자들의 무결성까지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모니터링: 농업시장부 소속 검사관들은 향상된 위험 기반 식품 안전성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테스트용 식품 시료 수를 늘릴 것입니다. 나아가, 보건부 Wadsworth Center Lab과 State Food Lab은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실험실 협업을 늘리고 뉴욕주 내 판매 식품 테스트 강화를 통해서 뉴욕주민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4. 교육 & 업계 지원: 뉴욕주는 농업 환경 관리 프로그램과 통합 페스트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안전한 식품 처리 방식과 환경 책무를 교육시키기 위해 400만여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또한 Taste NY과 Farm-to-School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현지, 뉴욕주 인증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도모해나갈 것입니다.
5. 투자: 뉴욕주는 지역경제개발위원회와 협력하여 주민들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 레스토랑과 기관 소속 구입자들에게 현지 제품을 홍보하는 현지 식품 배급 허브에 투자할 것입니다. 뉴욕은 유기농 곡물 생산으로 전환하는 농장에게도 투자할 것입니다.

유방암과 전립선암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검사

Cuomo 주지사는 유방암 검사율을 늘리고, 여성들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많은 남성들에게 전립선암과 관련된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는 9,100만 달러 규모의 종합적인 주단위 계획을 실시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뉴욕주에서 여성들이 유방암 검사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또한 여성들이 유방조영술 예약을 하고 이를 지킬 수 있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동료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해 보다 많은 여성들이 정기적인 유방암 검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남성들에게도 전립선암 관련 위험성을 알릴 것입니다.

유방암은 뉴욕의 여성들에게 가장 흔한 암입니다. 또한 뉴욕 여성 중 암 관련 사망 사유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아, 매년 거의 15,000건의 유방암 진단이 발생하고 2,700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유방암과의 전쟁에서 최우선순위는 더 많은 여성들에게 유방암 검사를 받도록 하여 조기 발견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기 발견 시 사망률이 감소하고 조기에 암을 확인할 가망성을 늘려주어 치료가 가장 많이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2014년, 뉴욕주에서 연령에 맞는 여성 중 약 78.6%가 최소 2년에 한 번씩 유방조영술을 받고 약 576,000명의 여성이 받지 않은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주의 유방암 검사율이 향후 5년 동안 10% 증가하도록 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주지사의 이니셔티브의 결과 212,000여명의 추가 여성들이 2020년 12월까지 유방암 검사를 받을 것입니다.

전립선암은 피부암을 제외하고 뉴욕주 남성 사이에서 가장 흔한 암으로, 매년 15,000여명의 남성들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1,700명의 남성들이 이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주지사의 이니셔티브의 결과, 25,000명의 남성들이 동료 교육과 아웃리치 서비스를 받을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이들에게 전립선암의 위험에 대해 보건전문가와 논의하도록 하여 검사 여부에 대해 제대로 된 결정을 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암을 대상으로 1,500만 달러의 민관 아웃리치 및 교육 캠페인 발족

더 많은 여성들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남성들이 전립선암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뉴욕주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양면 [대민 인식 제고 캠페인](#) 을 실행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Healthcare Education Project와 협력하여 저소득층 및 혜택이 미진한 집단을 대상으로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이 검사를 받도록 이끌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검사에 대한 두려움,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여성들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환자 장벽들에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이 캠페인과 함께 보건부는 유방암 핫라인이 포함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주지사의 유방암 이니셔티브 내 구성 요소 프로그램과 여성들을 연결해주는 또 다른 수단도 마련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향후 5년 동안 뉴욕주에서 500만 달러의 교육 및 인식 제고 미디어 캠페인으로 이러한 활동을 보완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여성들이 유방조영술을 받고 남성들이 전립선암의 위험성을 보건전문가들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뉴욕주는 뉴욕주에서 10개의 커뮤니티 기반 동료 교육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유방암 검사 접근성 증대

보건부는 여성들의 유방조영술 서비스 접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미 이 검사를 제공하는 병원 기반 검사 시설에게 이른 아침, 저녁 또는 주말 동안 최소 주1회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일반적인 9am-5pm 근무일에 유방조영술 검사 일정을 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는 예약 때문에 지정된 곳으로 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여성들에게 유방조영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커뮤니티 보건기관으로 하여금 이동식 유방조영술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5,950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이동식 유방조영술 서비스는 FDA-인증 유방조영술 시설 당 검사를 받지 않은 여성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파견되어 편리하고 수준 높은 유방조영술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유방조영술 예약을 하지만 제 때 오지 못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하고, 후속 상담이나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 문제를 처리하고 뉴욕주에서 여성들에게 공조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암치료 및 기타 보건 시설에 추가의 보건 인력을 고용해 유방암 검사를 받으러 온 환자들을 파악하고 아웃리치 활동을 제공하며, 검사 완료를 빨리 끝내는 데 장애가 되는 교통과 같은 장벽을 없애며, 후속 진단 팔로우업 및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1,160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암 연구 지원

실행 가능한 디지털 건강 및 암 검사 기술 개발은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는 일입니다. 기업들에게 똑같이 도전이 되는 사항은 암 치료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는 데 드는 높은 비용입니다. 이러한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 뉴욕주는 뉴욕주의 Innovation Venture Capital Fund에서 500만 달러를 유망 암 관련 기술의 상업화를 지원하는 데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자금은 유방암 및 전립선암의 진단 또는 치료를 향상시켜주는 혁신 사항 외에도 유방암 검사는 받는 여성의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개 기업들이 상업화 과정의 초기 단계에 진입한 연구를 지원하는 데 500,000 – 100만 달러의 뉴욕주 투자를 받을 것입니다. 뉴욕주는 New York Ventures가 투자 기회를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최고의 암연구원, 연구자 및 생명과학 투자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를 설립할 것입니다. 이 투자 이니셔티브는 더 많은 기업들이 암 연구에서 초기 혁신 결과를 상업화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줄 것입니다.

공공 청렴, 윤리 및 정부 개혁 지지

LLC 허점 해소 및 선거 유세 공개 활동 증가

공개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Cuomo 주지사는 LLC 허점을 해소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허점이란 부자들과 부자회사들에게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를 이용해 뉴욕의 선거 유세 기부금 한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선거 유세 기부금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지사는 후보들에게 선거 유세 기부금을 현행 연 2회 요건 대신 60일마다 선거위원회에

알릴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입법관들의 외부 수입 제한

입법부의 파트 타임 구조로 인해 다양한 분야와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공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인으로 활동하지 않지만 대신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험을 갖고 있는 입법관들에게 확실한 이익을 제공합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주지사는 뉴욕주가 입법관들의 외부 수입 한도를 연방정부가 입법관의 외부 수입에 적용한 한도와 유사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으로 뉴욕주 입법관들의 외부 수입은 기본급의 15%로 제한됩니다.

자발적인 공공 선거유세 캠페인 자금 시스템 채택

현행 선거법은 부자 기부자와 특수 이해관계자들에게 유리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선거유세 자금 기부에 보통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후보에게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06년 선거 당시 뉴욕주의 후보들은 미국 내 다른 세 개 주보다 소액 기부자(1-250달러)에 대한 의존이 적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뉴욕주민들의 목소리를 부활시킬 유일한 종합적인 방법은 소액기부자들의 각출 자금을 중점을 둔 자발적인 공공 선거 유세 자금 지원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주지사는 자발적인 공공 선거 유세 캠페인 자금 지원 시스템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선거 유세 캠페인 자금 개혁 제정

연방법과 달리, 뉴욕은 개인 및 기업의 “가계비(housekeeping)” 계정에 무제한의 기부금을 허용합니다. 이 계정들은 선거 유세와 연관이 없는 정당 활동에 사용되지만, 큰 돈이 정치적 경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뒷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현행 시스템 역시 “정치모금활동가”라고도 하는 선거 유세 기부자들의 중개인들이 대규모의 개인 기부금을 선거 유세 활동에 전달하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정치적 영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가계비 계정에 25,000달러의 기부 한도를 책정하고 정치모금활동가의 신분을 공개하도록 하여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FOIL의 새로운 개혁을 통한 투명성 증대

뉴욕 FOIL(Freedom of Information Law)은 정부 기록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 권한을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주정부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주지사는 뉴욕주정부의 투명성 향상과 개방성 제고를 위해 FOIL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투명성이란 행정부에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주지사는 FOIL가 입법부에도 똑같이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주지사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살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FOIL를 JCOPE와 입법부 윤리위원회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부패 혐의로 기소된 입법의원들에 대한 연금 몰수 요구

부패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은 공무 중 발생한 연금을 계속 받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뉴욕주민들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입법의원들이 어떤 식으로든 뉴욕주민들의 돈을 계속 받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주지사는 입법의원들이 공무와 관련해 범죄 혐의로 기소되면

언제 의원으로 뽑혔더라도 연금을 몰수하도록 하는 양원 합동 결의안의 채택을 제안하였습니다.

JCOPE 투명성 및 단속 강화와 로비스트의 윤리 요건 강화

JCOPE 검토위원회는 2015년에 JCOPE가 제 업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변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지사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단속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JCOPE에게 꼭 필요한 변화 사항을 담은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재산공개내역(FDS)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정부 단체와 일반시민 모두 이러한 공개 요건의 강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uomo 주지사는 JCOPE 관리들에게 FDS에 표시된 내역을 증빙하는 자료를 찾고, JCOPE 감사에 실패한 공무원들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강화하고, FDS에 대해 가짜 재무 정보를 고의로 제출한 관리들을 지방검사가 감독하도록 하는 입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공무원들에게 실제 금액을 신고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FDS에 있는 금액 범주를 삭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공무원법 제74조에 담긴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두 위배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JCOPE가 도움을 주고 공무원법 위반을 사주한 사람을 기소할 수 있도록 “공범 책임(accessory liability)”을 만들 것입니다.

헌법위원회 소집

뉴욕 헌법(New York Constitution)은 20년마다 뉴욕주민들이 뉴욕주 헌법 수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지의 여부를 국민투표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투표는 2017년에 있을 예정이며, Cuomo 주지사는 헌법 회의가 투표자들에게 Albany의 지속적인 개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지사는 이 회의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비정당 위원회를 창설하는 데 1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는 또한 현행 회의 대표단 선발 과정에 대해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할 경우 수정을 권고할 권한을 위임 받았습니다.

139개 지역의 조기 투표

뉴욕 거주민들은 1,980만 명이지만, 1,170만명만이 유권자입니다. 지난 비-대통령 선거 년도에는 유권자 중 오직 29%만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1/3도 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지난 대선 때에는 유권자들 중 53.6%만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뉴욕주민들은 부재자 투표를 통해 일찍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당일에 자신이 거주하는 카운티에 있지 못하게 되거나 장애로 인해 투표장에 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일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뉴욕의 근로자들의 경우 선거 당일에 투표장에 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모든 선거에서 조기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카운티가 거주자들에게 최소 한 곳의 조기 투표소에 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거주자들이 선거일을 앞두고 12일 동안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평일에 최소 8시간, 주말에는 5시간 동안

조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각 카운티들은 모든 50,000명의 주민들을 위한 한 곳의 조기 투표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양당 카운티의 선거위원회는 편의성과 접근성을 기준으로 조기 투표소의 구체적인 장소를 결정할 것입니다. 조기 투표는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우리 선거가 보다 많은 사람들을 포함시켜 민주적인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동 유권자 등록

Cuomo 주지사는 유권자 등록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지사는 뉴욕을 자동차부(DMV)에서 자동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세 번째 주로 만들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미 DMV에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지만, 현재의 프로세스는 필요 없이 번잡하여 잠재적인 유권자가 DMV 서비스 신청 시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DMV 사용자가 참여하지 않기로 하지 않는 한, DMV 신청 시 사용한 정보는 자동으로 카운티 선거위원회로 송부되어 신청자를 등록하거나 등록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유권자 등록을 원치 않는 뉴욕주민은 간단히 “비 참여(opt out)”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정확한 유권자 등록을 유지하고 뉴욕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좋은 정부 및 투명성 강화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납세자들이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주에서 개인 시민에게 흘러들어가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감사원과 검찰총장은 이미 뉴욕주 기금 운용에 관한 감사와 수사를 수행할 다양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방식에 따르면 이들 두 기관들은 민간 기업과 주정부 판매자 계약을 감사할 때 서로 공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법안은 검찰 총장, 감사원, 정보기술서비스국, 총무국(Office of General Services)에게 일반인들이 주정부 계약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연구를 수행해 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로비법 개혁

우리의 로비법은 기존의 허점을 없애고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주정부 또는 현직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정치 컨설턴트들에게 로비스트 등록을 하도록 요구하고, “로비활동”이라는 용어정의에서 커미션을 받는 외관원 활동의 배제를 폐지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지사는 JCOPE의 감사에 따르지 않는 로비스트에게 1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로비스트에게 이미 불법적인 “조건부 사례 약정”을 맺을 경우 금융제재를 가하며, 허위사실을 제공할 때 모든 로비스트들에게 연방 텔레뱅킹 금융 사기 혐의도 적용시킬 수 있는 강제 전자소송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